

데스크 시국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민선 8기가 시작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두 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7명 등 모두 29명의 단체장이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임무에 들어갔다. 대다수 단체장들은 첫날 서민 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사안을 '취임 1호'로 결재했으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날 아침 군민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린 뒤 공식 업무를 시작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록 첫날의 모습이지만 29명 모두 지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통해야 문제도 해결책도 보인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 지역 구청을 담당하던 취재기자 시절, 20여 명의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을 직간접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별다른 능력이 없었지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조문(弔問) 정치, 좋게 말하면 친화력으로 단체장이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애초 기대하지 않았지만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지역의 대립을 해소하고 발전을 이끈 이도 있었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객관적인 경력과 능력이 뛰어난데도 자기 잘난 맛에 임기 내내 시끄럽고,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한 단체장들도 여럿 있었다. 임기 시작부터 공무원은 물론 지

새롭게 출발하는 29명의 목민관들에게

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마이 웨이'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지역 현안을 두고는 우물쭈물 결정장애에 탓에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다음 단체장에까지 부담을 떠넘긴 이들도 잊지 않는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측근이든 공무원이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내가 편한 사람, '에스맨'만을 썼다가 사람 잃고 민심 잃고, 심지어 정치 생명까지 잃은 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정치적 리더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모든 권력과 자리를 탐할지라도 반드시 욕심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으니, 그것이 목민관(자치단체장)이라고 다산 정약용은 설파했다. 정치인은 권력 쟁취가 목적이지만, 같은 정치인일지라도 자치단체장은 시민이 목적이란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이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은 소통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역민과 소통하려면 자신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과오를 지적해 줄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 반드시 생각이 같은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함께 한 동지가 아닌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로 나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결단이 중요하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지방정치에서 민과 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체장은 소통을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목민심서를 통해 제시했다. 목민심서 12편 중 제1편 '부임' 편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관에 호소하려 들어오는 백성이 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속하고, 아랫사람의 뜻이 제대로 통하여 막힘이 없어야 백성의 부모와 같은 목민관이라고 칭하게 된다. 마침 식사 중이거나 목욕하는 때라도 문지가 급하지 못하게 하고, 문지가 이를 어기면 매를 맞게 해야 한다. 흑 뒷간에 가 있는 때라면 잠깐 기다리

게 한 뒤 만나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산은 소통을 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하면 잘 된 인사일까. 단체장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다. 중요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리더의 몫이다. 결국 리더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

'쓴소리를 가까이' 스스로 견제해야

1400년 전 중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당 태종 이세민은 정적(政敵)의 신하를 고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이세민의 형 이견성에게는 '위장'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는 시간만 나면 이견성에게 동생을 죽이려는 견의를 했다. 하지만 이세민이 정변을 일으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황제가 오른다. 황제에 오른 이세민은 위장을 잡아 놓고 "형에게 매일 나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 그대인가"라고 물은 뒤 "그대는 앞으로 내 곁에서 항시 나에 대한 험담을 해 주게"라며 신하로 삼았다. 훗날 위장이 죽자, 이세민은 "내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말해 줄 사람을 잃었으니 이제 두 번 다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탄식하며 울었다고 한다.

어떤 정권이나 조직이든, 심지어 기업일지라도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는 탓에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끼리끼리'의 인사들로 구성된 집단은 지지체는 물론 그것이 거대한 정부일지라도 의외로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해 추락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취임 첫날 나를 선택해 준 지역민을 향한 친절, 그때의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어떤 체제나 권력에 흥망성쇠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권력이 국민의 삶에 등한시한 채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 최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하거나 무능한 권력들은 여지없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한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력들은 비록 그 시작은 막지 못했지만 끝은 국민의 힘으로 종지부를 찍게 했고 조금씩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수준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인정받았고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이처럼 국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활발하게 교체하면서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발전이나 쇠퇴냐' 기로에선 대한민국

지난 대선을 통해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불의를 심판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정치의 때가 많이 묻지 않았으니 신선한 정치를 할 것이다' '정과대를 옮기는 결정을 했으니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정치를 할 것이다' '스스로 경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하니 전문가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등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완전히 기대와는 떠난 정치를 하고 있다.

첫째, 공정하지 못하다.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적대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140여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권위주의적이고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거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5년은 내 마음이 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셋째 경험 부족하다면서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권력이 민주적이고 권위를 내려놓으면 언론을 비롯하여 온갖 세력이 마음 놓고 비판하지만, 권력이 무섭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론은 눈치를 보며 찬양가를 늘어놓는다. 그렇게 올바른 견제와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지켜보았다. 일부 세력에 의

해 국적이 농단되는 것이다. 일부 세력에게 부당한 권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사익을 챙기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외교와 통일 그리고 국방과 민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와 모든 것을 반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분간은 이전 정부의 노선을 잠시 동안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정세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나라의 쇠락이 엿보인다는 나의 생각이 지나친 비약만은 아닐 것 같은 걱정이 든다. 최근 스리랑카의 혼란이나 우크라이나의 고통 등이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닌 것이다. 특히나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우리는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욱 두렵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반도의 4강 중에서 미국과 일본만 편에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 같지 않다.

아직도 5년이 남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해서 국운이 쇠락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모든 국민의 숙제가 되어 버린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기에도 벅한데 국가의 무능력 때문에 어려움이 커진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지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고



박해용  
지역문화활동가·철학박사

변하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나아가 이웃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이것은 마치 마술 지팡이를 갖는 일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올까? 그런 책을 읽는 일에서 온다. 후자는 책을 읽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책을 읽는 일은 의외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요즘처럼 더위가 우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압박하는 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에 속할 것이다. 더위로 인해서 머리가 잠시 멈춘 것 같은데, 책을 읽으라는 것은 차라리 고문이란가? 책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젊은 날, 어느 여름날, 어떤 책을 읽다가 온몸이 따끈한 흠뻑 젖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책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펠트란트의 '토론하는 두 학자'라는 그림을 기억한다. 학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명장면이다. 이 그림을 보면, 두 학자가 책의 내용을 번갈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가 소통

책을 읽자! 더운 날에도

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독수리처럼 피력할 순간을 포착이라도 하려는 듯 긴장한 모습을 감지하면 감정이입이 된다. 학자로 살았던, 다른 일을 하며 살아왔던,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세월을 산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쭈글쭈글하거나 속이 차지 않은 마른 수수대 같은, 털 익은 노인으로 살면서 삶이 만족하다고 말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말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헛된 짓은 또 없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글을 쓰는 읽은 명칭한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책을 읽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떠나는 배와 도착하는 배들이 왕래하는 사이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이름 모를 어느 항구 조용한 곳,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던 불꽃이 이글거리는 젊은이의 눈이 기억난다. 어느 먼 외국의 지하철에서 앓을 자리를 잡자 말자 배낭을 열고 책을 꺼내 읽는, 목마른 사슴이 냇가에 도착하자 마자 물을 찾듯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습도 곁진다. 그들은 거의 모두 타인의 시선에 대하여 완성된 삶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와 여유를 느끼게 한다.

책을 읽는 일은, 다음에 읽을 읽어야 할 책을 알려 준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어느 날 알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 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든 사람이라고 말한다. 소유하는 의미가 아

닌, 내 삶의 길을 알려 주는 바로 '내 책'을 찾은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길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 엉덩이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나?

흔히들 친구를 갖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아무 친구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모순에 찬 세계 안에 서도 그러나 무언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 생애 다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삶의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인간 관계가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독서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러나 이제 알아야 하는 신비한 생의 기쁨이다.

따라서 '가을엔 독서하는 날이다'라는 발언은 버려야 한다. 형식적이고 허울 좋은 이야기들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삶을 살자!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순간에도 책을 읽는 한 군인을 보지 않았는가? 사람은 책을 읽을 줄 아는 동물이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쓴 루이스 세풀베라의 말처럼, 그러나 더운 날이라고, 추운 날이라고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사람의 삶을 소홀히 하는 일이다. 덮든 찮든 서늘하든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아래와 같은 명언을 인정해야 한다. "내 이 세상 도처에서 쉼 곳을 찾아보았으니, 마침내 찾아낸,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다!"(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 서문에서)

社說

경제위기 커지는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新)3고'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때 이와중에 여야 정치권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집안싸움으로 날을 새워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코로나 사태 여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까지 겹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 6%대로 올라섰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실질소득 감소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환율로 인해 올 상반기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내수 시장까지 위축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국회는 40여 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하반기 국회의장단만을 선출한 채 여야의 이견으로 원(院)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권은 대안란에 빠져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성과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으로 갈려 반목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권력 다툼에 몰두하면서 경제 위기 속에 민생은 의지할 곳마저 찾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추세라면 물가와 금리는 한동안 고공 행진을 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함께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민생 입법과 추경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보행자 보호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꼭 지켜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전면 시행됐다.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하루 전인 어제 오전 중 1시간 동안 광주 서북구 말바우 사거리와 서구 KBS 광주방송총국 사거리에서 지켜본 결과 상당수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다. KBS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차량 80여대 가운데 15대(18%)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져 있고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우회전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까닭은 우회전 차량들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

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3-6명에 달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광주에서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가 295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410명이 다쳤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는 총 70만 783대이다. 인구 2.06명당 한 대쯤이다. 늘어남 자동차 대수만큼 자동차 운행 에티켓이 아쉬운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은 특히 자신을 위한 안전 운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우회전이나 스쿨존 통과 시 차량을 잠시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후 다시 출발하는 착한 운전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無等鼓

담양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산실이고 그 중심에 송강 정철이 있다. 정철의 4대 가사문학 중 세 개가 담양에서 탄생했다. 송강정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산실이 고 식영정은 성산별곡의 무대다.

정철은 한양에서 태어났지만 을사사화로 몰락한 부친을 따라 담양 창평에 정착해 10년을 살았다. 임억령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김인후·송순·기대승 한때 학문을 배우는 등 호남 사람이 그의 학문적 토대가 됐다. 과거에 급제해 공직에 나간 후에도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담양에 은거하며

피해자 가운데는 대사간(감사원장)인 이발·이길 형제와 최영경, 정개청 등 호남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발의 82세 노모와 8살 난 아들도 고문으로 숨졌는데 광산 이씨는 별문지화의 변을 당했다.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이발의 후손들은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다지면서 "정철, 정철~" 했겠는가. 기축옥사 이후 광산 이씨는 물론 정개청의 가문인 고성 정씨는 정철 가문인 연일 정씨와 400년간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강과 담양

담양에 있는 공립 대안 학교인 송강고 개명을 놓고 논란이 찾아들지 않고 있다. 정철에게 피해를

입은 6개 문중은 송강고가 정철을 연상케 한다는 학교 이름을 바꿀 것을 요청했는데 학교 측이 '술가람'으로 개명을 추진하자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소나무를 지칭하는 '술'과 강의 옛말인 '가람'을 합성해 만든 술가람고도 정철을 연상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송강은 뛰어난 문학가였지만 잔혹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호남 사람을 도륙한 정치인 송강이 교명에 맞지 않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철에게 피해를 입은 6개 문중은 송강고가 정철을 연상케 한다는 학교 이름을 바꿀 것을 요청했는데 학교 측이 '술가람'으로 개명을 추진하자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소나무를 지칭하는 '술'과 강의 옛말인 '가람'을 합성해 만든 술가람고도 정철을 연상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송강은 뛰어난 문학가였지만 잔혹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호남 사람을 도륙한 정치인 송강이 교명에 맞지 않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